

# JAEMIN HAN SOLO CELLO RECITAL

2024 인 하우스 아티스트

한재민

무반주 첼로 리사이틀



롯데문화재단은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롯데건설, 롯데렌탈, 롯데물산, 롯데칠성음료, 호텔롯데, 롯데웰푸드, 롯데정밀화학, 롯데지주,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캐피탈, 롯데정보통신, 롯데하이마트, FRL KOREA, 대흥기획, 롯데홈쇼핑, 롯데GRS, 캐논코리아의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2024 IN HOUSE ARTIST

Series I.

# JAEMIN HAN SOLO CELLO RECITAL

2024 인 하우스 아티스트

한재민

무반주 첼로 리사이틀

LOTTE  
CONCERT HALL



©Shin Joong Kim

## PROGRAM

존 윌리엄스      무반주 첼로를 위한 세 개의 소품      15'  
John Williams      Three Pieces for Cello Solo

- I. Rosewood
- II. Pickin'
- III. The Long Way North

가스파르 카사도      무반주 첼로 모음곡      15'  
Gaspar Cassadó      Suite for Cello Solo

- I. Preludio - fantasia
- II. Sardana (danza)
- III. Intermezzo e danza finale

죄르지 리게티      무반주 첼로 소나타      8'  
György Sándor Ligeti      Sonata for Cello Solo

- I. Dialogo
- II. Capriccio

### INTERMISSION

졸탄 코다이      무반주 첼로 소나타 b단조, Op. 8      30'  
Zoltán Kodály      Sonata for Cello Solo in b minor, Op. 8

- I. Allegro maestoso ma appassionato
- II. Adagio (con grand' espressione)
- III. Allegro molto vivace

\*본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e program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2024.3.27 WED  
7:30 PM

롯데콘서트홀

주최 | 롯데문화재단

## Series II. TRIO RECITAL

2024 인 하우스 아티스트  
II. 트리오 리사이틀

\*티켓 오픈 예정

2024.10.30 WED 7:30 PM

바이올린 | 크리스토프 바라티  
첼로 | 한재민  
피아노 | 박재홍

# ARTIST



© Shinjaong Kim

JAEMIN HAN SOLO CELLO RECITAL

Series I.

2024 IN HOUSE ARTIST

## 한재민, 첼로

## JAEMIN HAN, Cello

“남다른 재능을 지녔다. 음악에 진심이고, 단련된 자아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있다.

자신만의 해석으로 음악에 생명을 불어 넣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연주에는 즐거움과 즉흥성이 묻어 있다.” - 정명화

2006년생 첼리스트 한재민은 2021년 루마니아에서 열린 제오르제 에네스쿠 국제 콩쿠르에서 열다섯의 나이로 최연소 우승을 거머쥐었다. 같은 해, 두 달 뒤에는 제네바 국제 콩쿠르 3위 및 특별상을 받아 50년 만의 첼로 부문 한국인 입상자라는 영예를 얻었다. 또한, 2022년 윤이상 국제 음악 콩쿠르 결선에서 윤이상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1976)'을 연주해 우승을 차지했는데, 결선에서 이 협주곡을 연주해 우승한 건 콩쿠르 20년 역사상 첫 기록이었다. 그의 콩쿠르 석권은 일찌감치 어린 시절부터 시작했다. 2015년 오사카 국제 음악 콩쿠르, 2017년 헝가리 다비드 포퍼 국제 첼로 콩쿠르, 2019년 독일 뚝자우어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1위를 휩쓸었다. 이 화려한 이력들은 그가 5세에 첼로를 시작한 지 10여년 만에 이룬 성과다.

한재민은 이미 룩셈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구스타보 히메노와 함께 한 한국 투어를 포함하여 몇몇 저명한 오케스트라와 지휘자들과 협연했다. 2022-23 시즌, 그는 안드리스 포가의 지휘 하에 스타방에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노르웨이 데뷔, 뉴질랜드에서 오클랜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성시연 지휘로 뉴질랜드 데뷔를 가졌으며, 통영 국제 음악제에서 솔로 리사이틀뿐 아니라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등과 함께 한 실내악 공연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2023년 여름에는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에서 피에타리 잉키넨 지휘의 KBS 교향악단과 데뷔하여 현지 언론의 극찬을 받았다. 2023-24 시즌의 주목할 만한 연주로는 정명훈 지휘로 KBS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라트비아 리가에서 열리는 첼로 체시스 국제 페스티벌에서 라트비아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 압 판 초베덴과 함께 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 그리스 아테네 국립 오케스트라 협연 등이 있다. 특히 2024년 롯데콘서트홀 인 하우스 아티스트로 선정되어 2회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 외에 이탈리아, 독일, 영국, 한국에서의 리사이틀이 예정되어 있다.

한재민은 첼리스트로서는 유일하게 도이치 그라모폰의 '라이징 스타' 시리즈에 선정되어, 2022년에 녹음한 쇼케이스 리사이틀이 스테이지+ 플랫폼에 공개된 데 이어 2023년 6월 첫 디지털 싱글 녹음이 발매되었고 추가 트랙이 발매되었다.

현재 독일 크론베르크 아카데미에서 볼프강 에마누엘 슈미트 교수의 가르침을 받고 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정명화, 이강호, 초요시 츠츠미 교수를 사사했다. 다니엘 뮐러 쇼트, 미클로시 페레니, 율리안 슈테켈, 지안 왕, 루이스 클라렛, 에드워드 아론, 로런스 레서, 폴 캐츠 등 세계적인 명성의 첼리스트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하며 음악 세계를 넓히고 있다. 한재민은 삼성문화재단으로부터 조반니 그란치노 첼로를 대여받아 연주하고 있다.

# PROGRAM NOTE

글 | 송주호 (음악칼럼니스트)

JAEMIN HAN SOLO CELLO RECITAL

Series I.

## 존 윌리엄스: 무반주 첼로를 위한 세 개의 소품

### John Williams: Three Pieces for Cello Solo

설명이 필요 없는 영화음악 작곡가 존 윌리엄스(\*1932)는 클래식 작곡가로서의 삶도 한껏 즐기고 있다. 그의 클래식 작품들은 영화음악과 달리 과감한 불협화음과 진지한 음악적 시나리오를 갖추고 있는데, <무반주 첼로를 위한 세 개의 소품>(2000)도 그중 하나다. 이 곡은 2000년 여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강력한 전통으로부터 얻은 영감”에서 출발했다. “미국 음악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 되는 음악적 어법과 리듬의 억양을 가진 토속적인 어투를 표현하는 데 특히 첼로가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을 당했던 시절을 돌아보며, 고난과 애환의 정서도 함께 담았다.

1곡 ‘로즈우드’(Rosewood). 저음에서 고음으로 쓸어올린 후 내리치는 강렬한 제스처로 시작한다. 사실 이는 노예들을 향해 내리치던 채찍 소리이다. 그리고 불협화적인 거친 소리에 노예들의 울부짖음을 새겼다. 음악적으로는 “고통을 잊기 위해 연주하곤 했던 옛날 금속 기타를 모방했다.”

2곡 ‘뜯기’(Pickin’). 작곡가는 이 악장은 벤조의 현을 뜯는 연주법과 면화를 뜯는 행위를 모두 의미하며, “압제에 굴하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생명력을 가져다주는 오래된 ‘사이드슬랩’(side-slap)과 ‘슈슬랩’(shoe-slap) 댄스의 에너지와 활력을 표현”한다고 말한다. 숨 쉴 틈 없이 돌진하면서 강약의 대비, 프레이즈의 구분, 피들 주법, 악기 몸통 두드리기 등으로 특유의 어투를 만든다.

3곡 ‘북쪽의 긴 길’(The Long Way North). 이 곡은 같은 제목을 가진 리타 도브(Rita Dove)의 시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쉬 아가야 이제 울지 말거라... 언젠가... 언젠가는!” 먼저 자장가 선율이 연주되지만, 곧 설움에 복받쳐 가슴에 묻어두었던 통곡을 쏟아낸다. 그리고 “자유를 향한 기나긴 여정에 항상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던 불굴의 정신”을 표현했다.

## 가스파르 카사도: 무반주 첼로 모음곡

### Gaspar Cassadó: Suite for Cello Solo

바르셀로나 출신인 가스파르 카사도(1897~1966)는 음악가였던 아버지에게 7세부터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파리에서 파우 카잘스의 제자가 되었다. 그는 모리스 라벨과 마누엘 데 파야로부터 작곡을 배웠으며, 1920년대 중반부터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중에서 <무반주 첼로 모음곡>(1925)은 오늘날 도전적인 연주자들에 의해 필수 레퍼토리아자 카사도의 대표작으로서 자주 연주되고 있다. 세 악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이베리아반도의 민속적인 특징이 바탕에 있다.

1악장 ‘전주곡-환상곡’은 느리고 우아한 사라반다(사라방드)이며, 2악장 ‘사르다냐’는 서로 손을 잡고 큰 원을 만들어 추는 카탈루냐의 민속춤이다. 3악장 ‘간주곡과 마지막 춤’은 3박자 춤곡 ‘호타’(jota)이다. 이렇게 카사도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 여러 춤곡에 기반을 두고 있어, 바흐의 여섯 개의 모음곡을 양식적으로 계승한다.

다양한 악기를 모방하는 것도 눈에 띈다. 특히 스타카토나 현을 가볍게 연주하는 부분은 하프나 침발롬(cimbalom: 양금과 유사한 민속악기)을 염두에 둔 것이며, 1악장과 2악장의 더블스톱(두 개 이상의 음을 동시에 내는 연주법)은 백파이프 혹은 허디거디를 연상시킨다. 이러한 특징은 코다이의 <무반주 첼로 소나타>와도 비슷하다. 그리고 1악장에 스승인 라벨의 발레곡 <다프니스와 클로에>의 첫 곡에서 사용된 플루트 선율도 들린다. 이 선율은 하모닉스(현 위에 손을 살짝 얹어 고음의 배음을 만드는 연주법)로 플루트의 음색을 모방한다.

2024 IN HOUSE ARTIST

# PROGRAM NOTE

JAEMIN HAN SOLO CELLO RECITAL

Series I.

## 죄르지 리게티: 무반주 첼로 소나타

### György Sándor Ligeti: Sonata for Cello Solo

헝가리 출신인 작곡가 죄르지 리게티(1923~2006)는 1960년대에 구성적 작곡 방법이 아닌 실제적 청취를 강조하며 음향작곡을 내놓아 큰 주목을 받았으며, 20세기의 대표적인 현대음악 작곡가로 존경을 받았다. 오늘 연주되는 그의 <무반주 첼로 소나타>(1948/53)는 자주 연주되는 곡이지만, 사실 헝가리를 떠나기 전에 작곡된 초기작으로서 음향작곡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이 시기를 “리게티의 ‘역사 이전’ 양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곡은 서로 다른 시기에 작곡된 대조적인 짧은 두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악장 ‘대화: 차분하게, 루바토로, 노래하듯이’. 부다페스트 음악원에서 공부를 마무리할 무렵인 1948년 25세 때의 초기작이다. 당시 리게티는 첼로를 공부하던 안누시 비라니(Annuss Virány)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이 곡을 작곡했으나, 안타깝게도 비라니는 그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감상적이고 차분한 선율이 면면히 흐르면서 곳곳에 더블스토폱 화음으로 덧칠한다. 헝가리 민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버르토크와 코다이와 정서를 공유한다.

2악장 ‘광시곡: 급하게 돌진하며’. 1953년에 첼리스트 베라 데네스(Vera Dénes)의 위촉을 받은 리게티는 ‘대화’에 이 곡을 추가하여 소나타를 완성했다. 이 악장은 1악장과 달리 템포가 매우 빠르며, 스타카토와 레가토를 번갈아 연주하는 정밀한 기교를 요구한다. 중간에 1악장을 잠시 회상하지만, 이내 광기 어린 돌풍으로 덮어버린다. 버르토크의 야성적인 피날레를 연상시키며, 코다이의 <무반주 첼로 소나타>를 떠올리게 하는 제스처들도 언뜻 들린다.

## 졸탄 코다이: 무반주 첼로 소나타 나단조, Op. 8

### Zoltan Kodály: Sonata for Cello Solo in b minor, Op. 8

졸탄 코다이(1882~1967)는 벨러 버르토크(Béla Bartók)와 함께 헝가리의 시골을 직접 방문하여 민속음악을 채보하고 연구했다. 그리고 자신의 음악에 이러한 민속음악의 특징을 반영했는데, 버르토크는 민속음악을 현대적인 음악언어에 도입하는 반면, 코다이는 드뷔시의 영향을 받아 민속음악에 예술적으로 다듬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코다이의 <무반주 첼로 소나타>(1915)는 그러한 품격 있는 음향과 이국적인 향취가 이상적으로 배합되어 있는 걸작이다.

이 곡에 가득한 독특한 특징들은 이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우선 변칙조율(scordatura)을 사용한다. 첼로는 본래 C2-G2-D3-A3로 조율하지만, 이 곡은 두 저음 현을 반음씩 낮춰 B1-F#2-D3-A3로 조율한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첼로에서 만들기 어려웠던 화음과 하모닉스음을 연주할 수 있다. 그리고 헝가리의 민속악기를 모방한다. 첼로는 이 곡에서 침발롬과 백파이프, 지터(zither: ‘크로마하프’와 유사한 작은 민속악기), 타로가토(tárogató: 클라리넷과 유사한 헝가리 민속악기), 하프, 기타, 바이올린, 더블베이스, 타악기 등 여러 악기로 변신한다. 이를 위해 왼손 피치카토, 더블스톱, 빠른 트레몰로, 트릴, 폭넓고 강렬한 아르페지오, 솔 폰티첼로(브릿지 근처에서 연주), 솔타스토(지판 위에서의 연주) 등 다채로운 연주법들이 사용된다. 코다이는 이러한 악기들을 모방하여 집시 춤곡의 하나인 ‘베르분코시’(verbunkos)를 연주하는 집시 앙상블을 표현하고자 했다. 첼로의 한계를 시험하듯 다섯 옥타브에 이르는 범위를 넘나드는 것도 또한 이 곡을 더욱 인상적으로 만드는 특징이다.

1악장 ‘빠르게 장엄하게 열정적으로’는 주의를 집중시키는 강렬한 화음으로 시작하여 빠르게 진행되며, 2악장 ‘차분하게 상당히 표현적으로’는 구슬픈 민요를 부르듯 감성적이고 신중하다. 3악장 ‘매우 빠르게 활력있게’는 축제의 막바지를 즐기는 듯한 강렬한 춤곡이다.

2024 IN HOUSE ARTIST

# MAXIM VENGEROV

## VIOLIN RECITAL

막심 벤게로프 바이올린 리사이틀



2024. 4.9 TUE 7:30PM 롯데콘서트홀

R석 15만원 | S석 10만원 | A석 6만원 | B석 4만원

프로코피예프 5개의 멜로디, Op. 35 프로코피예프 바이올린 소나타 제1번 단조, Op. 80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라벨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치간느



공연정보확인

LOTTE  
CONCERT HALL



Apple Music Classical

앱 다운로드하기



Apple Music 개인 또는 가족 요금제 구독이 필요합니다.